

陽宅論과 農村地域 傳統家屋의 配置形態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Yangtaeknon and Arrangement Forms of Rural Traditional House

장 활 진* 도 용 호**
Jang, Hwal-Jin Do, Yong-Ho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rural traditional houses which upper-class in Chosun Dynasty Investigation of arrangements and compositions based on theory of Yangtaeknon.

- 1) Feng-shui Theory : About people who have taker profits by the ground.
- 2) Eumtaeknon : Locating graveyards brings to the descendants profits.
- 3) Yangtaeknon : The descendants will have taken profits by arrangement forms of the hous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raditional house by two methods. First method is study on arrangement forms, second is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Yangtaeknon.

키워드 : 풍수, 양택론, 배치형태

Keywords : Feng-shui, Yangtaeknon, Arrangement Form

1. 序 論

1.1 研究目的 및 意義

우리 나라의 風水思想은 歷史가 오래되었다 하여도 過하지 않을 程度이다. 新羅時代 以後부터 우리 民族에게 깊은 影響을 주었다. 風水思想은 高麗時代, 朝鮮時代를 거쳐오는 동안 國家의 發展과 衰退를 都城의 決定 등 國家의 大事에 影響을 주었을 뿐 아니라 個人的 집터, 建物の 形態를 決定하는 데에도 많은 作用을 하였다.

朝鮮時代に 들어와 더욱 發展된 體系를 갖춘 風水思想은 兩班과 庶民 모두에게 집안과 家門의 吉凶을 決定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大部分 中國에서 만들어진 風水書를 사용했기 때문에 專門인 知識이 없는 一般人들은

使用하기 어려웠다. 後期에 들어와서 “經世致用”, “實事求是”를 主張하는 實學이 登場하면서 風水思想에도 影響을 미쳐 墓터를 잡는 陰宅風水보다는 實生活에 直接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陽宅風水 研究를 促進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또한, 이 時期에 一般人들도 使用할 수 있는 “李重換의 擇里志” 등의 書籍들이 出版되기 始作하였다.

본 研究는 위와 같은 背景으로 著述된 陽宅書들을 中心으로 三要의 內容과 東西八宅論의 內容을 整理하고, 이와 같은 陽宅論의 理論이 그 當時에 지어졌던 住宅들이 實際로 適用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目的이 있다.

또한, 過去의 建築環境과 오늘날의 建築環境과는 다르다 하겠다. 가장 크게 變化된 要素로는 垆地의 不足 즉, 所謂 말하는 明堂 위에 建物を 지을 수 있는 範圍가 限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居住者는 限定된 垆地에서도 自身에게 조금이나마 利得이 되는 建物を 建築하려 한다.

* 중부대학교 대학원 건설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중부대학교 건설공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이러한 傾向에서 나타나게 된 問題點을 限定된 垞地에서 優先的인 占有를 통한 解決方案을 찾을 것이 아니라 住居空間의 配置構成과 坐向에 따른 方法이 있음을 살펴보는 데 意義가 있다.

1.2 研究對象 및 方法

본 研究의 對象은 陽宅論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推定되는 農村地域에 現存하는 朝鮮時代 上流住宅이며 地域別(基準‘道’)로 7곳을 표 1과 같이 選定하였다.

표 1. 研究對象

家屋名	區分	內 用
金東洙	位置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建築年代	1784년 金命寬
	文化財	重要民俗資料 第26號
綠雨堂	位置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建築年代	18세기→19세기(사랑채)
	文化財	史蹟 第167號
觀稼亭	位置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建築年代	1480년대 愚齋 孫仲墩
	文化財	寶物 第442號
香壇	位置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建築年代	1540년대 晦齋 李彦迪
	文化財	寶物 第412號
尹拯古宅	位置	충청남도 논산시 교촌리
	建築年代	18세기초 尹拯
	文化財	重要民俗資料 第22號
船橋莊	位置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배다리 마을)
	建築年代	18세기초→1815년→1816년 李乃蕃
	文化財	重要民俗資料 第5號
秋史古宅	位置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306
	建築年代	1670년대
	文化財	重要民俗資料 第190號

研究 進行 方法은 文獻考察을 통하여 風水思想과 陰宅論 그리고 陽宅論에 대하여 考察하였으며, 建物의 分析은 文獻 및 現地調査·踏査를 바탕으로 進行하였다. 그리고 配置形態에서는 안채, 사랑채, 대문의 3要所에 대하여 配置平面

圖와 함께 살펴보았으며 陽宅論의 分析에서는 配置概念圖와 陰陽·五行 그리고 東舍宅·西舍宅을 中心으로 分析하여 結論을 類推하였다.

2. 理論的 考察

2.1 風水思想

一般的으로 ‘風水’라고 말하는 ‘風水地理學’의 定議를 내린다면 自然環境의 理致를 把握하여 살아서는 人間의 삶터를 定하고 죽은 後에는 屍身을 埋葬할 보다 더 좋은 터를 찾는 方法論을 提示하는 學文이라고 할 수 있다.¹⁾

‘風水’란 말이 風水地理學의 代名詞로 通稱되게 된 것은 風水地理의 5大 要所인 山, 火, 風, 水, 方位 中 바람과 물이 다른 要所들 보다 風水에 끼치는 變化의 要因이 많아 穴場에 影響을 크게 끼친다는 것과 좋은 터의 條件 中 하나가 ‘藏風得水’에서 ‘風’과 ‘水’를 따서 일컬어지게 된 것으로 본다.

2.2 陰宅論

東洋에서는 일찍이 一般生活에서 各種生活에 이르기까지 陰陽五行의 原理를 適用하여 왔으며, 이것이 점차 發展하여 生命을 다스리는 醫學과 科學에까지 利用 發展되고 있는 것이다. 萬物에서 陰陽五行은 千變萬化를 일으키는 原因이고, 陰陽은 萬物을 構成하는 最少한의 두 가지 氣質을 말하는 것이다.

人間은 陽의 精과 陰의 神과 宇宙의 氣로서 凝結된 精神的 有機體이다. 精과 神은 본래 氣로부터 온 것이다. 精氣는 뼈에 居하고, 神氣는 肉體에 居하며 死亡 後의 神氣는 땅으로 돌아가고, 精氣는 뼈에 百年동안 남아있으며, 後世에 氣를 傳達한다. 그 氣의 波動은 後孫에게 感應되며, 增幅時 後孫은 繁昌하고, 減少時 滅門의 火가 닥친다.²⁾

1) 하이텔의 ‘生活風水’에서 引用

2) <http://my.dreamwiz.com/ejarchi/음택.htm>
2000. 10. 10.

2.3 陽宅論의 構成體系

過去 오래 前부터 우리의 祖上들은 背山臨水의 地形이 住宅의 造營에 最適의 場所라 生角했을 것이다. 이러한 生角은 아주 오래 前부터 내려온 것으로, 原始時代 사람들의 聚落立地를 살펴보면 주로 江가를 中心으로 언덕이나 작은 구릉지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들의 生活와 直接 聯關되는 것으로 時代를 거듭할수록 더욱 좋은 條件의 立地를 찾으려 했으며, 이것은 나아가 住宅의 最適 立地를 위한 條件으로까지 發展하는 契機가 되었을 것으로 推定되고, 나아가 住宅에 있어서의 風嗽理論인 陽宅論을 形成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陽宅論은 自然과 調和를 이루며 人間의 本質의인 面을 찾으려고 하는 先驗的이고 演繹的인 一面을 갖고 있는 素朴한 建築計劃各論³⁾의 一種으로 이에 대한 研究는 우리 祖上들의 內在的인 建築思想을 엿볼 수 있는 最善의 길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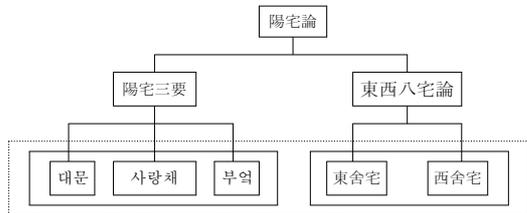


그림 1. 陽宅論의 構成概念圖

陽宅에 대한 內容은 李重煥의 “擇里志”에 比較的 仔細하게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집의 垆地를 決定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地理이고, 그 다음으로는 生利이며, 그 다음이 人心, 다음이 山水로 나와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要因 中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좋은 場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밖에 洪葛選의 “山林經濟”, 그리고 “林園十六志” 등 다른 여러

風水書에서도 이런 陽宅에 대한 內容을 다루고 있다.

陽宅論에서 陽宅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며, 이와 關連된 風水를 陽宅論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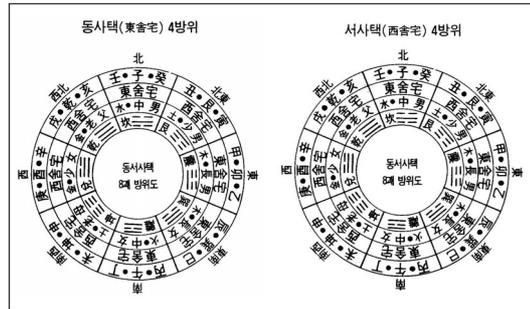


그림 2. 東·西舍宅의 8괘 方位圖⁴⁾

向에서의 東·西舍宅이란 東舍宅, 西舍宅으로 區分된 八方位(그림 2)는 각 方位마다 該當되는 人物이 定해져 있으므로 그 方位와 相對되는 構造上 方位의 缺陷에 따라 該當人物이 于先 火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建物の 坐向과 大門을 中心으로 構造를 보았을 때 吉方位는 네 方位이고, 凶方位는 나머지 네 方位가 된다. 吉方位라 함은 相對되는 方位가 서로 相生이 되는 方位이고, 凶方位는 相剋이 되는 方位이다.

그러므로 方位上 人物의 區分은 乾-西北방면-老父 家長이 되고, 坤-西南方位-老母 主婦가 되고, 震-正東方位-長男 또는 長孫이 되고, 巽-東南方位-長女가 되고, 坎-正北方位-中男이 되고, 離-正南方位-中女가 되고, 艮-東北方位-小男이 되고, 兌-正西方位-少女가 된다. 이와 같은 方位에 該當하는 人物이 構造上의 大門方位와 相生이 되면 吉하나 相剋이 되는 경우 그 該當되는 人物이 于先 火를 입는 것으로 解析한다. 또한 地表面에 흐르는 氣運은 陰과 陽으로 區分되기도 한다. 陰은 南東(辰, 巽, 巳)·正南(丙, 午, 丁)·南西(未, 坤, 申)·正西(庚, 酉, 辛)

3) 玄斗塔, 韓國建築의 陽宅論에 關한 研究, 홍익대 碩士學位論文, 1977.11

4) 황종찬, 現代住宅風水, 좋은 글, 1999. 7. p.73

로 女性을 意味하고, 陽은 北西(戌, 乾, 亥)·正北(壬, 子, 癸)·北東(丑, 艮, 寅)·正東(甲, 卯, 乙)으로 男性을 意味한다. 이 陰陽의 4개 方位는 제각각 氣運의 젊음과 老衰함으로 區分, 陰인 南東은 長女, 正南은 中女, 南西는 老母, 正西는 少女의 方位로 區分되고, 陽인 北西는 老父, 正北은 中男, 北東은 小男, 正東은 가장 旺盛한 男子의 氣運이 흐르는 方位로서 長男으로 각각 區分된다.⁵⁾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理論을 바탕으로 각각의 研究對象을 分析하였다.

3. 陽宅論의 事例分析

3.1 金東洙 家屋

(1) 建物과 配置形態

蒼霞山을 背景으로 앞에는 東津江의 上流인 맑은 河川이 흐르고 있어 典型的인 背山臨水의 좋은 터에 세운 住宅으로 利益이 생겨지는 집이라 하여 집을 보고 吉凶을 占쳐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여러 代를 살아오면서 富를 누리고 살아온 터로서 風水의 明堂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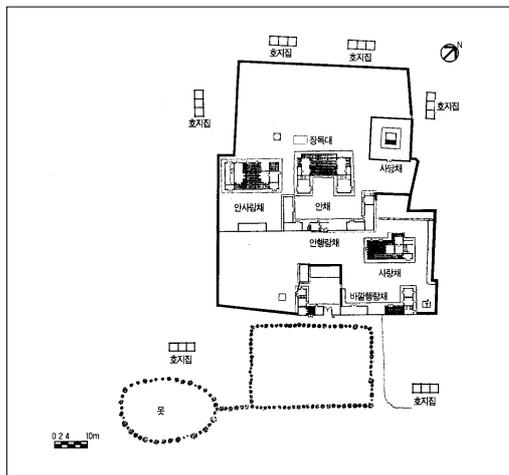


그림 3. 金東洙 家屋 配置平面圖⁶⁾

이러한 形局에 東西로 65m, 南北이 73m정도의 長方型 담으로 둘러싸고 主建物은 東西面을 向하여 建立되었다. 바깥행랑채의 소슬대문을 들어서면 雅淡하게 調和를 이룬 사랑채가 보이고, 사랑채의 안대문을 들어서면 집의 構造가 大廳을 中心으로 左右 對稱을 이루며 左右 前面의 突出 된 部分에 부엌을 配置한 특이한 平面의 안채가 있다.

안채의 西南쪽으로 안사랑채가 있는데 入鄉組인 金命寬이 본채를 지을 때 그 自身과 木手들이 臨時로 居處하기 위하여 지은 建物이라고 하며, 안채의 東北쪽에는 朝鮮後期 中流住宅 以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祠堂이 있다. 길게 設置되어 있는 문간채는 大門을 들어서면 右側에 마구간이 있고, 左側에 방, 마루, 방이 있으며, 꺾이면서 北쪽에 있는 칸에 방과 부엌을 1칸씩 두고, 이어서 바깥 男子들이 使用하는 便所가 있다.⁷⁾

안채의 平面은 “ㄷ” 字型으로 構成되었으며, 大廳을 中心으로 한 左右 兩側은 對稱을 이루고 있다. 안채의 지붕은 八作지붕이며 처마는 홀처마이며 도리는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기둥은 역시 모두 방주이다. 大廳의 前面은 3칸이며, 側面은 반 칸이다. 前後 양쪽에는 퇴가 달리고, 이 사이에는 사분합과 삼분합의 세살문이 있으나, 必要한때는 이것을 모두 들쇠에 올려서 開放할 수 있다.⁸⁾

안사랑채는 前面 5칸, 側面 2칸 반 규모의 “一” 字型 建物로 지붕은 八作지붕이며 처마는 홀처마이다. 기둥은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다. 이 建物は 다른 집에서 는 찾아보기 어려운 一種의 變形을 이루고 있다. 큰방과 정재(부엌), 大廳과 작은방, 이 방 後面의 정재 등은 慣例를 따라 配置되었으나, 작은방 東側에 1칸의 방을 이어 붙이고 이 방 앞뒤에 골방과 마루를 둔 것은 常禮를 벗어난 平面 構成法이라 하겠다. 이 空間은

p.115

5) 朴時翼, 前掲書, 1998. 7. p.169

7) 都龍昊, 前掲書, 2000. p.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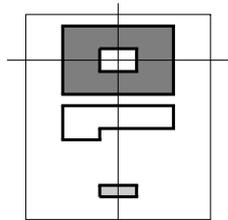
6) 金捧烈, 第 1卷 時代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1999.

8) 金光彦, 井邑 김씨집, 열화당, 1980.11. p.82

더욱 技能的이고 日常的인 空間들이라면, 中心 軸線上的 空間들과 西向한 建物들은 象徴的이고 規範的인 것들이다.¹²⁾

(2) 陽宅論의 分析

綠雨堂은 南西向이며, 대문의 位置는 역시 軸의 線上인 南西(未, 坤, 申)쪽에 位置해 있다. 따라서 西舍宅이며, 陰陽에 따르면 陰에 該當하며 그 中에서도 老母에 속한다. 五行에 따르면 土에 該當한다. 이 家屋의 配置形態들을 살펴보면 집안이 상당히 繁昌을 하는 形態를 이루는 것으로 使料된다.



■ 안채 □ 사랑채 ■ 대문

그림 6. 陽宅論과 綠雨堂의 配置概念圖

그림 5, 6을 통하여 家屋의 配置를 分析하여 보면, “口”字形인 안채는 北東쪽에 位置해 있으며, 대문은 南西쪽에 位置해 있었다. 그리고 “ㄱ”字形인 사랑채는 안채와 대문의 軸線上的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東쪽으로는 어초은사당, 고산사당, 안사당이 配置되었다.

3.3 觀稼亭

(1) 建物과 配置形態

觀稼亭은 平面的으로 主 居室의 入口에 대해 對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문으로부터는 正面의 全體基壇이 一律的으로 設置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觀稼亭 이라고 하는 扁額이 걸치어진 2칸의 突出部는 마루대청으로 그 中 1칸은 閉鎖的인 안채와는 對比的으로 樓閣과 같은 開放的인 形을 取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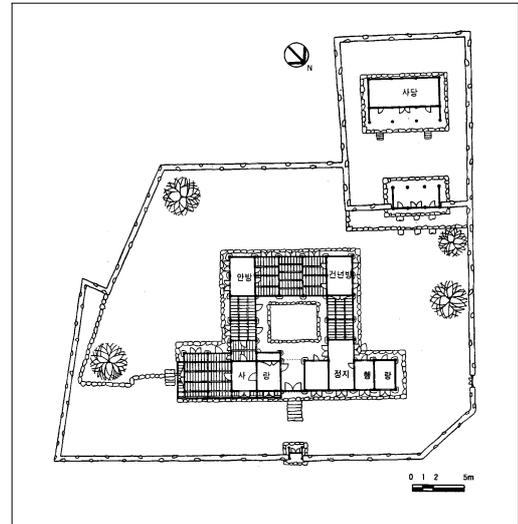


그림 7. 觀稼亭 配置平面圖¹³⁾

內樓네는 대단히 狹小한 뒷마루가 마련되어 있고, 더욱이 그것이 2칸의 사랑방까지 延長되어진 狀態로 사랑채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 그 正面에 놓여 있는 사랑채 基壇의 一部는 한 壇 낮추어져 亭子와 같은 效果를 나타내지만 그 側面은 안채의 基壇과 뒷뜰의 레벨(Level)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은 基壇레벨(level)의 變化는 平野에의 轉向性을 強調함과 同時에 높여진 마루 空間 아래에 앞뜰을 뒷뜰로 擴張시켜 보이는 效果를 同伴한다.

觀稼亭은 좁은 언덕에 位置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入口에서부터는 그다지 눈에 띄질 않는다. 그러나 사랑채의 대청에서는 나무관자로 되어진 門을 開方하면 前方의 평야가 한눈에 들어올 程度로 이 마을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폭넓고 아름다운 景觀을 지니고 있다.¹⁴⁾

(2) 陽宅論의 分析

觀稼亭은 家屋의 向은 南西向이며, 대문의 位置는 특이하게도 北東쪽에 자리 잡고 있다. 家屋의 向과 대문의 位置는 北東(丑, 艮, 寅)쪽에 位置함으로써 西舍宅이며, 陰陽에 따르면 陽이다. 그 中에서도 小男에 該當한다. 五行에 따르

12) 都龍昊, 前揭書, 2000. p.297

13) 김봉렬, 전게서, 1999. p.240

14) <http://mail.donga.ac.kr/~d9326478/village/v2.htm>

면 土에 該當한다 하겠다. 觀稼亭의 大門位置는 상당히 特色이 있으며, 그 位置는 家屋의 向과 는 絶妙하게 一致하였다. 또한 家屋의 西쪽에 祠堂領域이 位置해 있었다.

男에 속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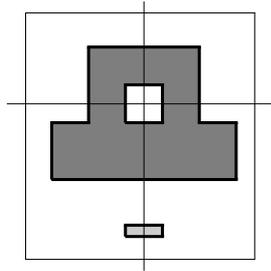


그림 8. 陽宅論과 觀稼亭의 配置概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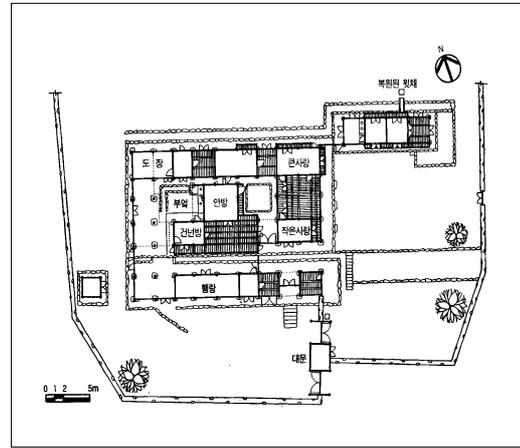


그림 9. 香壇 配置平面圖(16)

3.4 香壇

(1) 建物과 配置形態

香壇은 一體의 障礙物 없이 建物外觀 全體를 露出시킴으로써 마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建物이 되었다. 특히 前面 지붕 위로 露出된 세 개의 三角形 박공면은 士大夫家로는 類例없이 表現의인 形態다. 사랑채 形態도 같은 宜稻로 把握된다. “一”字形 몸체지만 지붕을 “工”字形으로 만들어서 사랑채 正面의 지붕에 2개의 박공면이 強하게 露出된다. 意圖가 없다면 必要없는 形態要素다. 香壇은 경사지를 2개의 壇으로 나누어 앞단에 主要한 몸체를 配置하고, 아랫단에는 긴 行랑채를 配列했다. 두 建物 사이에는 거의 한 층에 가깝게 높이 차이가 난다.¹⁵⁾

(2) 陽宅論的 分析

그림 9, 10을 보았을 때 香壇은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많이 접하여 온 올바른 形態의 家屋이 라할 수 있다. 家屋의 向은 南西向이며, 그에 알맞게 位置한 東(甲, 卯, 乙)쪽에 位置한 大門이다. 이 家屋의 配置構成은 매우 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陰陽에 따르면 陽이며, 그 中에서도 長

五行에 따르면 木에 該當한다. 각 建物의 位階性 까지도 考慮하여 사랑채와 行랑채의 높이 차이는 거의 한 층에 가깝다. 이 家屋의 配置構成은 너무나도 陽宅論적 側面을 考慮하여 建立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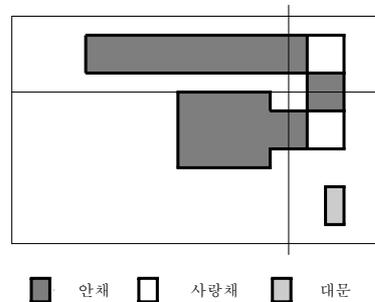


그림 10. 陽宅論과 香壇의 配置概念圖

3.5 尹拯古宅

(1) 建物과 配置形態

尹拯古宅은 海拔 300m 程度의 魯城山을 背景으로 魯城鄉校와 나란히 位置해 있으며, 古宅의 앞쪽으로는 작은 섬이 있는 커다란 方形의 연못

15) 都龍昊, 前揭書, 2000. p.299

16) 金捧烈, 前揭書, 1999. p.249

이 있고, 東南쪽의 松林에는 정녀문이 있다. “ㄷ”字型的 안채와 “一”字型的 문간채가 忠南地域 上流住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인 “口”字型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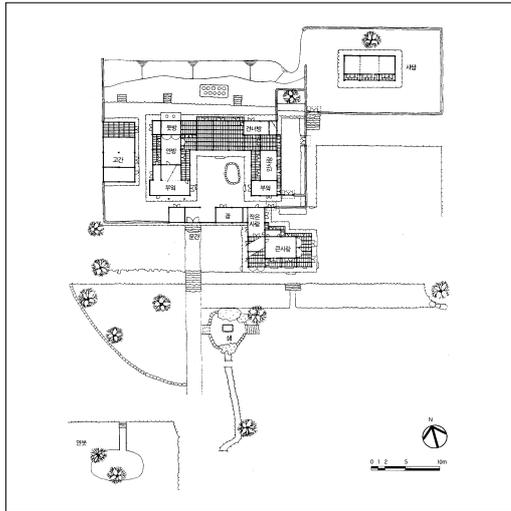


그림 11. 尹拯古宅의 配置平面圖¹⁷⁾

안채의 出入方式은 外部에서 안채가 곧바로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正面에 벽을 두고, 右側으로 1칸 꺾이여 안마당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안채는 8칸 대청을 中心으로 左側에 1칸의 방과 윗방을 두고, 西쪽으로 반 칸의 受納空間을 두었으며, 南쪽으로 2칸의 안방을 두고, 4분합 들어열개를 設置하였다. 안방의 西쪽으로는 2칸 모두 반 칸의 뒷마루를 두었다.

부엌의 上部는 누다락을 두고 간단한 살창을 설치하였으며, 부엌과 뒷마루 사이의 기둥에는 防風板을 달아 煙氣가 대청 쪽으로 流入되는 것을 防止하는 등 纖細함이 돋보이며, 대청의 右側으로는 2칸의 書庫와 1칸의 윗방 그리고 2칸의 건넌방과 부엌을 두었다.

사랑채는 正面 4칸, 側面 2칸 規模로 右側로부터 2칸의 대청과 큰 사랑방을 두고, 그 사

이에 4분합 들어열개를 設置하였다. 큰사랑방 左側에는 누마루를 設置하고 그 아래에는 큰 사랑방의 煖房을 위한 함실을 두었다. 누마루 옆으로는 2칸의 작은 사랑방이 있고, 문간채 쪽으로는 受納空間을 두었으며, 큰 사랑방의 뒤쪽으로는 반 칸의 방을 두어 큰 사랑방의 出入을 위한 전실로 使用한 듯하다.¹⁸⁾

(2) 陽宅論의 分析

尹拯古宅은 香壇보다도 더욱 理想的이다. 그 理由는 位階性과 軸의 概念까지도 考慮된 家屋이기 때문이다. 家屋의 向은 역시 南向이며, 대문의 位置 역시 軸의 概念인 南西(未, 坤, 申)쪽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尹拯古宅은 西舍宅에 該當한다. 또한 建物 周邊의 길과 연못들 역시 軸의 方向에 자리 잡고 있다. 이 家屋은 陰陽으로 區分한다면 陰이며, 그 中에서도 老母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五行으로 區分한다면 土에 該當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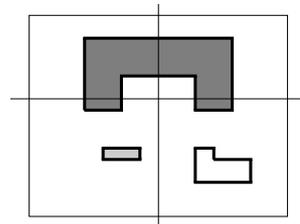


그림 12. 陽宅論과 尹拯古宅의 配置概念圖

3.6 船橋莊

(1) 建物과 配置形態

本人이 調査, 踏査를 하였을 時期에는 船橋莊의 補修工事が 進行 中이었다.¹⁹⁾ 그래서인지 船橋莊의 眞面貌를 살펴보기 못한 점 生角하며 船橋莊의 建物을 分析하였다.

18) 都龍昊, 前掲書, 2000. p.306

19) 공사기간 : 2000.6.13~2000.11.9

기술지도:문화재청기술과/시공사:동일건설주식회사

17) 金捧烈, 前掲書, 1999. p.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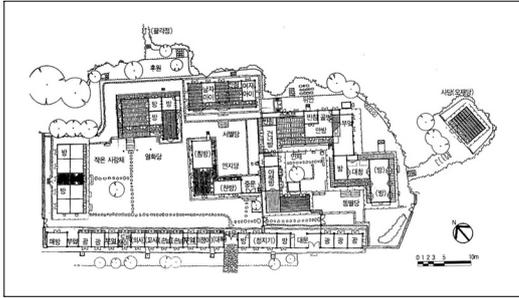


그림 13. 船橋莊 配置平面圖²⁰⁾

안채는 1700年 以前에 建立된 建物로 世宗의 兄인 孝寧大君의 11代孫 李乃蕃이 創建하였으며, 船橋莊의 建物 中 가장 庶民의인 性格을 띠고 있다. 안방과 건넌방이 大廳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부엌이 안방에 붙어 있다.

열화당은 男子主人의 專用 사랑채로서 李乃蕃의 孫子 “후”가 純祖 15年(1815)에 建立하였으며, 堂號인 열화당은 陶淵明의 歸去來辭 중 열친척지정화에서 따왔다고 한다. 열화당은 3단의 장대석 위에 세워진 樓閣形式의 建物로 매우 韻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동별당은 안채와 連結된 主人 專用의 別堂 建物로 이근우가 1920年에 “ㄱ”字形으로 建立하였다. 東쪽에 2개, 西쪽에 1개의 온돌방을 만들고, 前面에는 넓은 榻마루를 깔았으며, 後面과 東쪽은 좁은 榻마루를 돌렸다.

활래정은 船橋莊 庭園의 人工연못 위에 세운 亭子로 純祖(1816) 열화당을 세운 다음 해에 세웠다. 亭子 名稱은 朱子의 時 관서유감 중 “위유두원활수래”에서 따왔다고 한다. 활래정은 마루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 돌기둥으로 받친 樓閣形式의 “ㄱ”字形 建物이다.

기타 建築物로는 안채와 열화당 사이, 가장 고요하고 깊숙한 곳에 書齋 겸, 書庫로 使用했던 서별당은 6·25를 거치면서 消失되었던 것을 1996년도에 復元한 것이다. 建物의 側面에는 동진학교 터가 남아 있다.²¹⁾

(2) 陽宅論의 分析

船橋莊은 家屋의 向이 南西向이었으며, 대문의 位置 역시 軸의 概念으로서 西(庚, 酉, 辛)쪽에 位置하고 있는 西舍宅이다. 또한 陰陽으로 區分하여 본다면 陰에 該當하며, 그 中에서도 少女에 該當한다. 그리고 五行으로 區分하여 본다면 金에 該當한다 하겠다. 建物의 配置는 稠密하지 않으나 船橋莊 나름대로의 獨創性도 엿보이면서도 陽宅論의 配置 理論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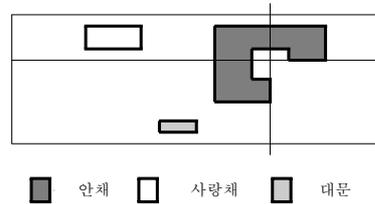


그림 14. 陽宅論과 船橋莊의 配置概念圖

3.7 秋史古宅

(1) 建物과 配置形態

예산읍에서 北쪽으로 약10km정도 떨어진 용궁리에 位置한 秋史古宅은 충청地域 특유의 나지막하고 둥그스름한 東山을 背景으로 前面이 탁 트인 곳에 建物 全體가 西쪽에서 東쪽으로 分散 配置되어 있다.

配置型式은 안채와 사랑채가 別棟으로 되어 있어서 안채의 門이 다른 古宅들과는 달리 東向하여 있다. 사랑채는 南向으로 坐向을 정했으며, 사랑채와 안채의 각 실은 南向하고 있어서 主出入에 關係없이 機能的으로 配置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住宅의 外部空間構成은 儒敎的 倫理觀에 비추어 볼 때 女性空間과 男性空間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76年 重建할 당시 그 原形이 일부 變形된 듯하다.

안채는 “ㄷ”字形에 “一”字形의 문간채가 連結되어 막힌 “ㄷ”字形을 이루고 있으며, 6칸의 넓

20) 金捧烈, 前揭書, 1999. p.213

21) 都龍昊, 前揭書, 2000. p.302

은 大廳을 中心으로 右側에 1칸의 윗방과 2칸의 안방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4분합 불발기 미닫이문으로 分離되어서 必要에 따라 이 門을 열 경우 3칸의 방을 하나의 空間으로도 活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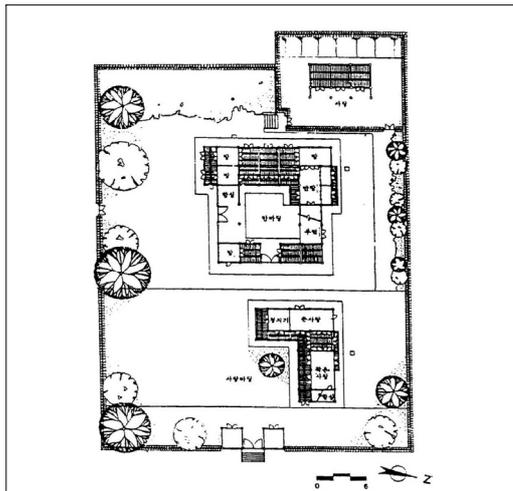


그림 15. 秋史古宅의 配置平面圖²²⁾

이러한 規模가 큰 “口”字型的 안채와 6칸 大廳은 그리 흔하지 않은 建物로서 中部地方과 嶺南地方에 分布되어있는 대갓집의 型式이다.

사랑채는 南向하여 “ㄱ”字型的 配置型式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주거의 사랑채에 비하여 상당히 넓은 空間構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主人의 社會活動이나 藝術活動에서 起因된 것으로 推測된다.

문간채 쪽으로는 2칸의 작은 사랑방과 반 칸의 함실을 두고, 그 上部는 작은 사랑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루다락을 設置하였으며, 南쪽으로는 전체 모두 반 칸의 퇴를 設置하여 쉽게 連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위쪽으로는 1칸의 大廳과 꺾여서 2칸의 큰 사랑방, 그 옆으로 1칸의 청지기 방은 모두 마루방으로 되어있다. 祠堂은 正面 3칸, 側面 1칸 규모에 반 칸의 퇴를 두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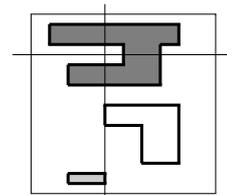
22) 都龍昊, 前揭書, 2000. p.305

으며, 안채 뒤쪽에 대나무 숲을 등지고 東向하여 位置해있다.²³⁾

(2) 陽宅論의 分析

秋史古宅은 秋史 金正禧 先生의 古宅으로써 그림 15, 16을 보았을 때 家屋의 向은 특이하게도 東向을 바라보고 있으며, 대문의 位置 역시 家屋의 軸에 알맞게 東(甲, 卯, 乙)쪽에 位置해 있다. 또한 陰陽으로 區分하여 본다면 陽에 該當하며, 그 中에서도 長男에 該當한다. 그리고 五行으로 區分하여 본다면 木에 該當하였다.

秋史古宅 역시 陽宅論의 理論에 따른 配置形態를 보여 주고 있었다. 家屋의 向은 다른 家屋과는 다르지만 東舍宅에 該當하는 位置에 각각의 建物을 配置하였다.



■ 안채 □ 사랑채 ■ 대문

그림 16. 陽宅論과 秋史古宅의 配置概念圖

4. 結 論

以上과 같이 朝鮮時代에 建立된 傳統住居建築 中 時代別, 地域別로 7곳을 選定하여 陽宅論과 住居의 配置關係를 分析해 본 결과(표 2)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金東洙 家屋, 秋史古宅, 香壇을 除外한 尹拯古宅, 綠雨堂, 觀稼亭, 船橋莊은 모두가 西舍宅이었으며, 陰陽에 따른 區分에서는 秋史古宅과 觀稼亭을 除外한 尹拯古宅, 金東洙 家屋, 綠雨堂, 香壇, 船橋莊은 陰이었으며, 五行에 따른 區分에서는 月에는 該當家屋이 없었고, 火에는 香

23) 都龍昊, 前揭書, 2000. p.305

壇 1家屋이 該當되었으며, 水에는 該當家屋이 없었으며, 木에는 金東洙 假玉, 秋史古宅이 該當되었으며, 金에는 船橋莊 1家屋이 該當되었으며, 土에는 가장 많은 家屋인 尹拯古宅, 綠雨堂, 觀稼亭이 該當되었으며, 기타에 分類되는 家屋은 단 한 家屋도 없었다. 아래 표 2와 같이 모든 研究對象이 陽宅論의 側面에서의 配置形態 再解釋이 可能함으로써 大部分의 朝鮮時代 上流住宅의 配置形態는 陽宅論의 理論을 바탕에 두고서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7. 都龍昊, 傳統建築의 理解, 中部大學交 出版部, 2000
8. 朴時翼, 風水地理說 發生背景에 關한 分析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7
9. 朴時翼, 風水地理說과 建築計劃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8
10.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일지사, 1974
11. 황중찬, 現代住宅風水, 좋은 글, 1999

표 2. 陽宅論의 側面에서의 綜合的인 分析表

家屋名		尹拯古宅	金東洙	秋史古宅	綠雨堂	觀稼亭	香壇	船橋莊	合計
東·西舍宅	東舍宅		●	●			●		3
	西舍宅	●			●	●		●	4
	기타								0
陰陽	陰	●	●		●		●	●	5
	陽			●		●			2
	기타								0
五行	月						●		0
	火								1
	水								0
	木		●	●					2
	金							●	1
	土	●			●	●			3
기타								0	
家屋의 向	東		●	●					2
	西	●			●	●	●	●	5
	南	●	●		●	●	●	●	6
	北								0
大門의 位置	東		●	●		●	●		4
	西	●			●			●	3
	南	●	●		●		●		4
	北					●			1

참 고 문 헌

1. 金捧烈, 第1卷 시대를 담는 그릇, 이상건축, 1999
2. 金捧烈, 第2卷 삶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9
3. 金捧烈, 第3卷 이 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4. 金得晃, 韓國思想史, 白巖社, 1978
5. 金光彦, 寒國의 住居民俗地, 民音社, 1988
6. 金光彦, 風水地理, 대원사, 1995. 2